



2017년 9월 24일(제842호) 연중 제25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공평하신 하느님

오늘 복음말씀이 전하는 포도밭은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한 포도밭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밭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며, 포도밭의 일꾼들은 모두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포도밭의 주인이신 하느님은 아홉 시에, 열두 시에, 오후 세시에, 그리고 오후 다섯 시에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일꾼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선발되어집니다. 곧 유능하고 똑똑한 이들은 먼저 선발된 반면, 일이 서툴고 어눌한 이들은 자신들을 원하는 주인이 없어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긴 몰라도 오후 다섯 시에 불려진 이들은 다른 일꾼들에 비해 썩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고난 체력도 약했을 것이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여러 모로 눈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인간관계도 서툴렀을 것입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흔히 우리들 안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곧 세상 안에서 쓸모없음으로 규정된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동등하게 일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던 모든 세대의 라자로(루카 16장 참조)들입니다.

그렇기에 밭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그들을 포도밭으로 부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에게 삶은

처음부터 불공평했고, 그 불공평함을 이해해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충분히 소외된 채 살아야 했으니, 하느님 나라에서만큼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주인은 늦게 온 이들부터 먼저 챙겨줍니다. 그렇게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본주의의 논리 안에서 이 같은 주인의 조치는 부당해 보입니다. 많이 일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일하지 못한 사람은 그에 걸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논리 안에서 언급되는 ‘공평함’은 사실 여러모로 허술합니다. 자본주의의 이면을 들여다 볼 때, 사실상 공평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세상의 논리로 태초에 모든 일꾼들을 창조하셨고, 그들 각자의 능력과 달란트까지도 친히 베풀어주신 하느님의 섭법을 부당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평함’이라는 말은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만 유보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만이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함에 대한 내가 가진 기준과 잣대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공평함과 다르다면, 나의 관점은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느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다르다면, 나의 관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전직(비드로) 신부 토성대(공군 3포비탄)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55,6-9

### 회답송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 2 독 시

필리 1,20ㄷ-24.27ㄱ

###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뒤 기울이게 하소서. ◎

### 복 음

마태 20,1-16

### 영성제송

주님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진리를 살다

## ● 성찬 제정과 축성문

성찬 제정 및 축성문은 최후만찬 때 예수께서 빵과 잔을 들고 하신 말씀으로, 성체성사의 기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감사기도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몸소 제정하신 제사는 당신의 말씀과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미사경본 총지침은 가르칩니다.(79항ㄹ) 사제는 그 직무를 통하여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며, 이로써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되어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로 봉헌되며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따라서 성찬제정과 축성문은 감사 기도뿐 아니라 미사 전체의 핵심이며 절정을 이룹니다. 이에 사제는 축성 후 허리를 약간 굽힙니다. 그리고 성체와 성혈 축성이 끝날 때마다 매번 성체와 성혈을 거양하여 신자들에게 보입니다.(1200년경 도입) 이어 사제는 옛 로마 전문에서 찾아내었던 “신앙의 신비”라는 말로 환호를 인도하고 공동체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하고 응답합니다. 코린토 1서 11장 26절에 따르는 이 본문으로 공동체는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업적 곧 파스카 신비를 찬양합니다. 로마 미사경본은 이 기념 환호 본문 외에 두 가지 다른 선택양식을 제시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 ● 기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게끔 기억을 일깨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미사 전체가 기념 행위지만 교회는 특별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이 기도를 바칩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 예를준비

부활을 기념하며 ….” 기념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며(제2양식) 주님의 승천과 재림(제1·3·4 양식)이 덧붙여지기도 합니다.

## ● 봉헌

새 미사경본은 사제만이 그리스도의 제물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와 함께 성찬례에 참여하는 공동체 모든 신자들이 제물을 봉헌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중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봉헌하나이다. 이는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사이며 세상에 구원을 주는 제사이옵니다.”(제4양식) 제3양식에는 이 점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는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우리가 바치는 제물은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적 사랑으로 인간에게 봉사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바로 그리스도 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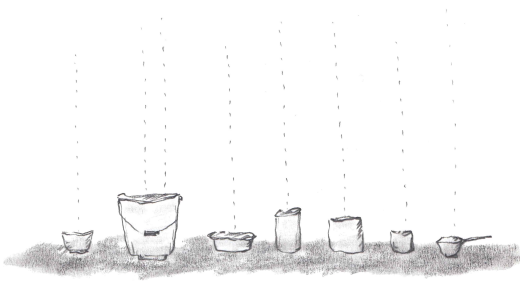
미사경본 총지침은 “교회, 특히 지금 한자리에 모인 공동체는 이 기념제로 흠 없는 제물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봉헌한다.”(79항b)고 가르치며 이를 감사기도 제2양식에서는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로, 제3양식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봉헌하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건너간 주님의 파스카 기념 의식을 함께 지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사 봉헌이 이루어지며 우리 또한 자신을 봉헌하는 제사를 바칩니다. 여기서 미사의 제사성이 드러납니다.

다음 주는 ‘미사의 제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헌실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불체』

복	음	묵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새는 마음

그대 마음은  
얼마나  
새고 있는가  
새는 마음  
무엇으로  
받아 내야 할지  
혹시 아시나요.

상화이야기

슬픔의 예수님



신드로 보티첼리(1445-1510)  
1490-1505년 작  
나무 위 유화 69 X 51.4 cm.  
개인 소장

본 이콘은 천사들이 수난의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과 수난 도구를 들고 예수님의 수난에 슬퍼하며 고통에 동참하는 천사들을 그리는 이콘이다.

예수님은 몸이 묶이신 채 손에는 못 자국이, 그리고 한 손으로는 가슴의 상처를 열어 보이시고 계시는데, 가시관이 박힌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계신다. 인상적인 것은 보통 성화에서 예수님의 휘광은 빛을 상징하듯 그려졌는데, 여기서는 천사들이 장식하고 있다. 자그마하게 그려진 회색빛의 천사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신 기둥, 예수님의 몸에 박혀있던 못을 빼기 위한 도구, 신포도주를 적신 스펀지, 예수님의 몸을 내리기 위한 사다리, 예수님을 채찍질한 채찍,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을 들고, 양손으로 혹은 의복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며 예수님의 머리 주변에 떠 있다. 그들의 나부끼는 의복과 천사들이 만드는 모형이 합쳐져 둥근 휘광 장식을 마감한다.

예수님의 붉은 의복의 목 부분 가장자리에는 “이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 IESU NAZARENU[S] R[EX] [IUDEORUM],”라고 적혀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계신 듯한데, 이것은 보는 이마다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깨어있어라, 어떤 이에게는 행동하라, 어떤 이에게는 기도하라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배워 우리의 머리와 정신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느님의 계획에 묵묵히 따르는 것이 아닐까?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5주일: 동성대 김병봉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의 날 행사  
때·곳: 9월 28일(목) 10:00, 해군 제2함대사령부

◆ 공군 준·부사관 연수

때·곳: 9월 23일(토)-24일(주일), 용성대 성당

◆ 교구장 신입사제 방문

- 용성대(20전비단) 성당  
때: 9월 24일(주일)
- 을지(12사단), 화랑(11사단) 성당  
때: 9월 26일(화)
- 백골(3사단), 청성(6사단) 성당  
때: 9월 27일(수)
- 소성(17사단) 성당  
때: 9월 29일(금)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